

건강·의료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광주일보·전남지역암센터 공동기획

암을 이기자!

<5> 간암 증상과 예방 치료

전남대 민정준교수 국제심포지엄 최우수 발표상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민정준(사진) 교수가 최근 독일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에서 '숙주-병원균 상호작용 영상'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우수 발표자상을 수상했다.



초청받은 과학자 30여명이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제조학 대장균과 약독화 살모넬라를 이용한 중앙 진단 및 치료용 플랫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백반증 치료 최신 장비 도입

조선대학교병원(원장 조남수)은 피부과에서는 최근 백반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슈퍼 엑시머 레이저 치료기(사진)를 도입 가동에 들어갔다.



엑시머 레이저는 백반증에 가장 효과적인 광선을 증폭해 피부 깊숙이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광선 치료에 비해 치료기간을 2~3배 이상 줄여주는 최신형 장비다.

건보공단 광주본부 개인정보 보호 실천 결의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는 지난 9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행동강령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전예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서약했다. 또 윤리 및 준법경영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간호사회 '간호사 재취업 프로그램'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회장 소향숙)가 광주지역 중소병원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재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과 실습 4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재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는 20일까지 광주 간호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간접 간호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간호사 수는 22만5천385명이며, 이 중 36.8%에 달하는 7만5천362명이 유유 간호사다.

B·C형 간염 환자 6개월마다 검진을

간암은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난 악성 종양을 말한다. 간암은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1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간암 환자 발생 수는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는 28명, 여자는 8명에 달할 정도다.

초기 증상 없지만 체중 감소·피로감 나타나 초기 발견 중요...간염 예방백신 접종은 필수

△원인과 종류=간염에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간경변증이 되면 간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간암 환자의 90% 이상을 보면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이 65~80%,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이 10~20%를 차지한다.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의 5~10%, C형 간염바이러스의 80% 이상이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고 정상인에 비해 B형 간염은 100~200배, C형 간염은 10배 정도 간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

(출산시 수직 감염으로 인한 전염 등) 간암의 발생 빈도가 높지만 유전적인 질환은 아니다. △증상과 진단=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중 감소, 우상복부의 통증,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간암에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이 아니므로 간암 위험요소를 가진 경우 정기 검진을 하도록 한다. 대한 간학회에 따르면 남자 30세, 여자 40세 이상으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과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가 모두 음성인 간경변증 및 기타 간암 발생 고위험군의 사람들에게 간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염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을 줄이고 간염 예방백신을 맞아야 한다. (조선대병원 제공)

초기에 발견해 수술적 절제술을 하는 게 안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간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약 20%에 불과하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거나 간 경변증 때문에 수술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간동맥 화학색전술, 고주파 열치료술, 알코올 주입법을 시행하며, 크기(3cm이하)가 작거나, 개수(3개 이하)가 적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 기능 악화로 어떤 치료 방법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이식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간암은 재발되는 경우가 약 50% 정도로 대부분 암이 있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간암이 발생한다. 재발시에는 처음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원칙으로 치료한다.

한 야채, 과일을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복수 위험이 있는 경우 짜게 먹지 않도록 한다. 술, 담배는 금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로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운동(산책, 빠르게 걷기, 맨손체조 등)을 하는 게 좋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 간염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을 줄이고 간염 예방백신을 맞는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즉시 면역글로블린과 백신을 맞으면 상당수에서 간염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 간염 환자나 간경변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남성 탈모 변이유전자 발견

영 등 공동연구팀 "20번 염색체 p11 분절" 탈모 7배 높여

이러 다른 3개군 연구팀이 또 다른 1천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검사에서 이 두 변이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7명에 1명 꼴로 조기탈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연구팀을 지휘한 영국 킹스 대학(KCL)

의 팀 스페터 박사는 탈모가 이처럼 유전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에 의한 진화적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머머리가 빠지지 않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탈모가 시작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 손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스페터 박사는 말했다. 새로 발견된 두 변이유전자는 남성탈모와 여성 탈모 모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유전자 발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스페터 박사는 밝혔다. 한편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의 빌리야르 약스 박사는 모낭세포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가 모낭세포에 있다는 사실과 이 줄기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Lgr5)이 모낭세포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쥐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금당부동산 (062)223-7400.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평가 70%이하. 금당부동산은 340평 헬스시설 연비 임대나 교환도 가능 6942천.

우주센터 고품 상가부지. 고품주택 터미널 옆 상가부지. 다용도사용가능, 약1200평. 평당가격 70만원. 부동산사내초 입구(군인회관)뒤.

대인동삼일부동산. (062)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9인의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일짜베기" 법원경매전문도우미. 대표 362-6001, 무료상담 080-090-4989. 근린상가·화순읍 삼천리 대지2589㎡ 건물522㎡ 감평가7억7천 최저가2억7천.